

LED전광판

기술 가이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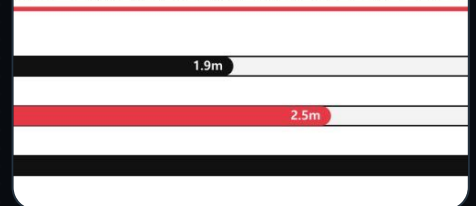
2026-09-15 · (주)연우솔루션 작성 · 사진 10장

픽셀피치는 맨 뒷줄에서 정한다

주일 2부 예배, 찬양 세 번째 곡. 맨 뒷줄 장의자에 앉은 권사님이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쓴다. 강단 뒤 프로젝터 스크린의 가사 둘째 줄이 오전 햇빛에 묻혀 흐릿하다.



점이 알갱이로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리



원문 수록 이미지 · 원문 전체 사진은 홈페이지 현장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

핵심 정리

- 01 화면 크기는 모듈 한 장 단위로 끊어서 정한다
- 02 회중석 조명을 낮추면, 화면 밝기도 함께 내려가야 한다
- 03 방송실에서 강단까지, 신호가 지나는 길을 먼저 그린다
- 04 견적서에는 모듈 값보다 벽과 일정이 더 많이 적힌다

본문 속 수치

2.5m

P2.5는 2.5m, P3.9는 3.9m.

4m

첫 줄이 화면에서 4m 떨어져 있다면 P2.5로 충분하다.

1.5m

찬양팀이 화면 1.5m 앞에 서는 구조일 때 비로소 P1.9를 꺼낸다.

320mm

실내 LED 모듈은 가로 320mm, 세로 160mm 한 장이 흔한 기본 단위다.

LED 스크린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단어가 픽셀피치다.

P1.9, P2.5, P3.9.

숫자 하나로 같은 면적에 들어가는 점의 수가 네 배까지 벌어진다.

픽셀피치는 가장 가까운 자리와 가장 먼 자리에서 두 번 잴다

픽셀피치는 LED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다.

P2.5라면 2.5mm마다 빛나는 점이 하나씩 박혀 있다.

피치 숫자를 미터로 읽으면, 대략 그 거리부터 점이 알갱이로 보이지 않는다.

P2.5는 2.5m, P3.9는 3.9m.

적용 디스플레이

실내 LED 전광판 · DID·사이니지 모니터 · 빔프로젝터

구성 요소

CMS·스케줄 송출 · 콘텐츠 제작 · 3D 모델링·설계 · 화상회의 연동 · LED 컨트롤러·송신카드

진행 단계

현장 실측 → 구성 제안·설계 → 설치·시공 → 시운전·인수 교육 → 운영·유지보수

관련 솔루션

Windows 10 지원 종료 · 노후 플레이어 전환

찾은 현장 출동

교육 · 대학 · 학교

이 가이드로 상담

☎ 010-2700-2648 · ✉ osskoreaing@gmail.com

원문 · 사진 전체: screenmaru.co.kr/blog/224412434087.html



연우솔루션
YEONWOO SOLUTION

기술 가이드 434087